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몽골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 입당봉헌예배> 드려

울란바토르 서쪽에 개척, 북방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 담당할 것

남선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지원을 통해 대지면적 1100평, 연건평 300평에 지상 3층, 종탑 5층의 교회 완공.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 입당봉헌예배>가 11월 27일(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와 김선도 감독님 내외, 남선교회 회원 및 현지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다.

동아시아의 내륙 국가인 몽골은 13세기 칭기즈 칸에 의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인 몽골제국을 건국했으나 14세기 멸망 후 중국과 러시아의 지배와 견제를 받아왔고 1924년 독립 국가가 되었다. 이후 소련의 지원을 받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소련 해체 이후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공화국이 되었다. 넓은 영토를 가졌으나 적은 인구, 살인적인 추위, 부정부패 심각, 티베트 불교와 샤먼 토속신앙 만연,

인구의 2% 정도만 기독교인이라 어느 곳보다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땅이었고, 이런 곳에 2002년 광림교회가 세워졌다.

여성교회의 후원으로 시작된 몽골선교

2002년 6월 23일 8명으로 울란바토르 동북쪽에서 시작된 어잉게렐(빛의 숲) 광림 게르 교회로 시작하여 2004년 8월 14일 지상 3층의 빨간 벽돌 건물인 '몽골 광림 어잉게렐 미션센터'(광림 제1 미션센터 : 이채욱 선교사)를 지어 봉헌하게 되었다.



2006년 6월 4일에는 울란바토르 서쪽의 버려진 땅에 광림 어르비트(세상의 빛) 교회

를 게르 교회로 개척하였다.



그리고 여성교회는 현지 몽골 여학생 '어등가와'를 후원,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 2007년 감신대에 입학하도록 도왔다. 어등가와는 학사와 석사까지 마친 후 현지 어르비트 교회에서 사역했고, 2012년 4월 서울남연회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 귀국하여 현재까지 어르비트 미션센터 담당 선교사로 목회를 하고 있다. 어등가와 선교사가 목회하던 게르 교회를 헐고 이번에 새로 건축하여 입당 봉헌하게 된 교회가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몽골 광림 제2 미션센터)이다. 금년 2019년 4월 12일 기공예배를 시작

로, 11월 20일에 남선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지원을 통해 대지면적 1100평, 연건평 300평에 지상 3층, 종탑 5층의 교회가 완공되어 11월 27일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몽골 제2 미션센터) 입당봉헌예배를 드렸다.

입당봉헌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사도행전 11장 27-30절 '새로운 선교 지평을 여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2006년 2개의 게르로 이루어졌던 교회가 선교센터가 되리라곤 꿈도 꾸지 못했는데, 남선교회의 헌신으로 13년 만에 미션센터를 지어 봉헌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곳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가 어잉게렐 미션센터와 함께 몽골의 미래를 열어갈 복음의 능력체가 되고, 일꾼들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되며, 몽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별된 장소가 되어 베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오해일 장로(국외선교위원장)

건너 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6-10)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를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의 협력자도 생겼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소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 선교에 함께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물질적으로 돕겠다는 교회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7절)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오다가 하룻밤 유하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손을 들며 '건너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그 부름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낯선 땅 유럽을 향하여 갑니다. 이것은 동네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대륙을 옮기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결단하게 하셨다면,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복음의 확장을 가져온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지 함께 본문을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말씀에 바울은 분명히 비두니아 지역을 통과하여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의 이스탄불 동쪽의 니케아 지경입니다. 313년 경 '니케아 종교 회의'가 열렸던 그 자리에서 저 소아시아로



사도행전 16:6~10

6.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룻밤을 유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건너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것을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9절) 드로아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도시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유럽으로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저 유럽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유럽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록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

은 그 즉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환난이 있을 줄 뻔히 알았으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유럽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10절) 바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 되는 복음이 온 줄 믿습니다.

둘째,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환상을 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10절)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적 환상을 보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환상을 이야기할 때에 대

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이 말한 환상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이 만나는 특수하고 계시적인 환상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것을 본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환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선한 사역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 영성의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 7절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길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30

광림수도원 <대성전> 리모델링 봉헌예배

12월 20일(금) 오후 4시 시작, 예배 후 <봉헌감사 기념음악회>도 개최



광림수도원 대성전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2월 20일(금) 오후 4시 봉헌예배를 드리고 감사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1988년 봉헌된 광림수도원은 한국 개신교 기도원 중 가장 수도원다운 분위기를 간직한 곳으로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적 쉼터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30년의 긴 세월 속에 시설들의 노후

화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빈번히 보수를 해야만 했다. 이에 광림교회는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수도원설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 현장실사로 설계와 공사비 절감 등의 대책을 마련, 2018년 9월 첫 공사를 시작하였다. 지난 4월 숙소인 살롬하우스 봉헌에 이어 금번 대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로써 광림수도원은 대성전과 살롬하우스, 기도동산과 다락방, 야외음

악당 등의 주변 시설들과 함께 한국교회 최고의 영성훈련센터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번 대성전 공사는 기존의 중세 수도원을 연상시키는 붉은 벽돌의 성전 외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를 3개 층으로 나누고 2, 3층을 대예배실로 꾸몄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는 세미나실과 중예배실, 개인기도실을 만들어 여러 단체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살롬하우스와 연결되는 지하 통로를 만들어 숙소로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새롭게 단장한 광림수도원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길 바라며,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한 광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또한 봉헌예배 후에는 <봉헌감사 기념음악회>가 7시부터 열린다. 송정미 교수와 라크로스 등이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2019 선교구 성가제> 10선교구 대상 수상



대강절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 12월 1일 주일 저녁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15개 선교구가 참여하는 <2019 선교구 성가제>가 열렸다. 선교구 성가제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시작과 함께 광림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되어 기쁨과 감사

의 축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다. 선교구 성가제는 1999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광림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지난 11월 맞이한 창립 66주년을 기념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

해 갖는 감사의 자리였다. 대회 일정이 나오면 각 선교구는 찬양연습을 시작하며 많은 노력을 한다. 이번 성가제는 본당 11개 선교구와 광림남교회 1, 2선교구,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총 15개 선교구가 참여했다. 이번 성가제 대상은 '주의 여호와'를 찬양한 10선교구가 수상했다. 금상은 '성령이여 오소서'를 찬양한 6선교구, 은상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한 11선교구가, 동상은 '시편 20편'을 찬양한 광림남교회 1선교구에게 돌아갔다. 12월 첫째 주일은 선교구 성가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박신애 기자 milkpsa123@naver.com

<경조총회> 헌신으로 섬긴 경조위원장들에게 감사



광림교회 경조위원회(위원장 장사도 장로)에서는 지난 12월 7일(토)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경조위원회 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

부 사랑과 감사의 시간으로 2019년 경조위원회 보고에 이어 특별공연, 시상, 특송, 행운상 추첨, 담임목사의 권면의 말씀과 3부 애찬의 시간을 가지며, 지난 일년을 결산하

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경조사역은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지만 그것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권면의 말을 전했다. 장사도 장로는 "경조위원회 2019년 추진과제는 감람동산 리모델링과 라파엘 조가찬 양단 창단이었으며, 이는 경조사역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개 과제를 통하여 광림 경조조직과 시스템이 한 방향으로 가는데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한해를 마치는 소감을 말했다.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포토 뉴스



중등부 학부모학교

11월 17일 주일, 오선화 작가를 강사로 중등부 학부모학교가 나사렛성전에서 열렸다.



광림평생대학 KSEC 종강

11월 28일(목) 광림평생대학 KSEC가 131명이 수료한 가운데 종강을 맞이했다.



대강절 성탄트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강절을 기념하여 광림교회 곳곳에 성탄트리가 설치되었다.

담임목사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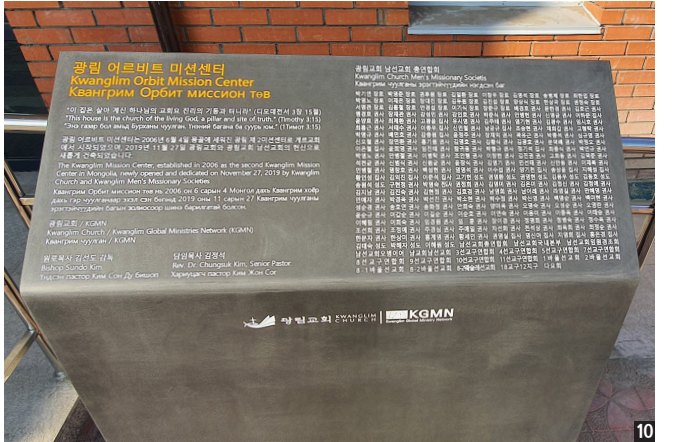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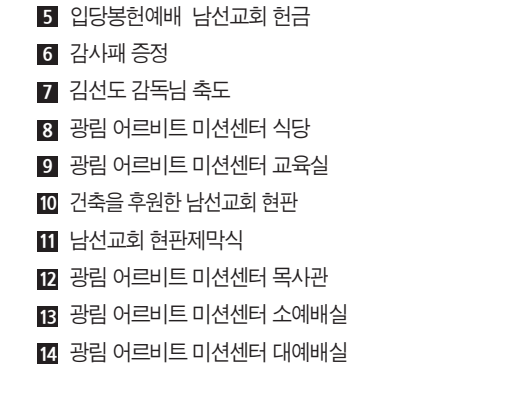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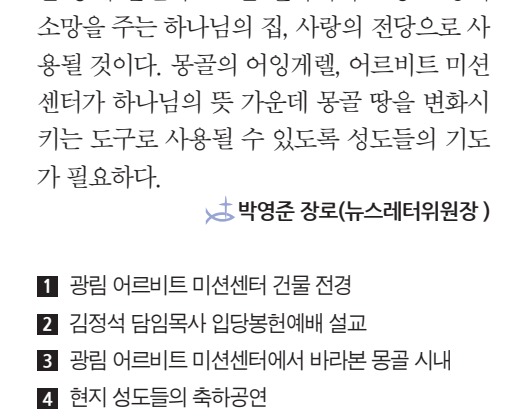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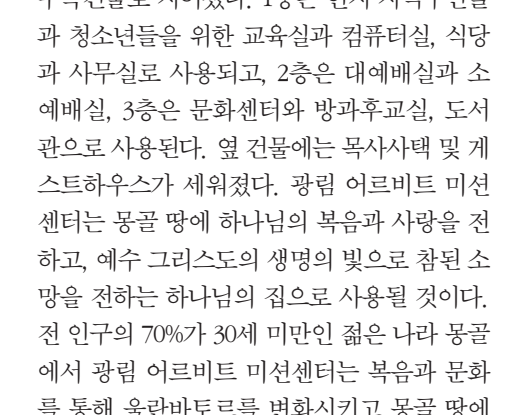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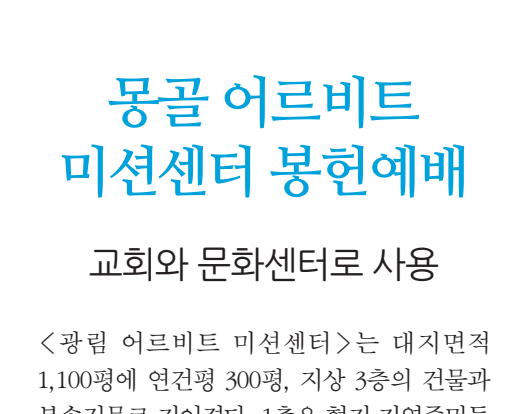
- 11/26~28 몽골 여르비트 선교센터 봉헌예배
- 12/1 2019 선교구 성가제
- 12/3 강남지방 교역자회의
- 12/7 경조총회
- 12/8 성서주일
- 12/8 사랑의 쌀 전달식

감독 동정



- 11/26~28 몽골 여르비트 선교센터 봉헌예배
- 12/1 2019 선교구 성가제
- 12/2 CTS 창사 24주년 기념 감사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몽골 어르비트 미션센터 봉헌예배

교회와 문화센터로 사용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는 대지면적 1,100평에 연건평 300평, 지상 3층의 건물과 부속건물로 지어졌다. 1층은 현지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실과 컴퓨터실, 식당과 사무실로 사용되고, 2층은 대예배실과 소예배실, 3층은 문화센터와 방과후교실, 도서관으로 사용된다. 옆 건물에는 목사사택 및 게스트하우스가 세워졌다.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는 몽골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참된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될 것이다. 전 인구의 70%가 30세 미만인 젊은 나라 몽골에서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는 복음과 문화를 통해 울란바토르를 변화시키고 몽골 땅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집, 사랑의 전당으로 사용될 것이다. 몽골의 어엿게렐, 어르비트 미션센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몽골 땅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 박영준 장로(뉴스레터위원장)

- 1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 건물 전경
- 2 김정석 담임목사 입당봉헌예배 설교
- 3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에서 바라본 몽골 시내
- 4 현지 성도들의 축하공연
- 5 입당봉헌예배 남선교회 헌금
- 6 감사패 증정
- 7 김선도 감독님 축도
- 8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 식당
- 9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 교육실
- 10 건축을 후원한 남선교회 현판
- 11 남선교회 현판제막식
- 12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 목사관
- 13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 소예배실
- 14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 대예배실

“연탄 한 장, 누군가의 간절함입니다”

〈2019 사랑의 연탄나눔〉 청년부 주관으로 12월 한 달 동안 진행



“연탄 한 장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지 처음 알았어요. 연탄 한 장이면 6시간 정도를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설명에 깨질까봐 조심하다 보니 몸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에 선 땀이 흐르고 팔 다리가 아파왔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결코 기운이 났어요”라고 작년 처음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한 어느 청년은 고백한다.

〈2019 사랑의 연탄나눔〉 모금 행사가 광림교회 청년부 주관으로 12월 한 달 동안 광

림교회 밀레니엄공원과 교회 일대에서 진행 중이다. 매년 겨울 연탄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온 광림의 청년들은 올해도 사랑의 메신저를 자청한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올해 5개 지역 약 50가정에 3만장의 연탄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모금한 성금은 이천 상용감리교회와 솔트 플랜 참여 교회 중에서 선별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1차로 12월 14일(토) 이천 상용감리교회 어르신들의 집과 노인정에 6천장의 연탄을 청

년들이 직접 배달한다. 이후 2차 교회와 가정을 선정하여 연탄과 유류비를 지원한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강절입니다. 최근 3년간 연탄 가격이 2배 이상 뛰어서 우리 주위에는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연탄 한 장은 간절함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 목회현장 -



조성한 목사(4선교구)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아님 환우들을 위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고통 가운데 고군분투하시는 집사님을 위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3살 어린아이와 초등학교를 위해, 속히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아 못하시는 권사님을 위해, 그외에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간절한 기도와는 달리 회복이 늦어질 때는 종종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심지어 나사르가 죽은 것처럼 죽음과 같은 절망적 상황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상황이 다급할 때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성숙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응답받을까 걱정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자랄 것인가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고 지름길로 가며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말씀이나 그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그 무언가가 아무리 강력하고 감동적이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도하면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훈련 아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향한 가장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고통스러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2019 성서주일〉 나의 사랑하는 책 ‘My Bible’

1904년 영국 성서공회에서 시작

오늘 12월 8일은 성서주일이다.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귀중함을 생각하는 절기이다. 성서주일은 1904년 영국성서공회가 성경출판 100주년을 기념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귀중한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부터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다.

오늘 3부예배에는 성서주일을 기념하여 ‘나의 사랑하는 책 My Bible’ 행사를 통해, 성

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인 초등 4학년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본당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4학년 고서영 어린이(초등1부)가 성경봉독을 하고, 최지한 어린이(초등2부)는 담임목사로부터 대표로 성경을 받는다. 이 성서전달식에서 4학년 부모들도 자녀에게 성경을 선물하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경을 자녀에게 선물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학교에서는 성서주일을 기념하여 설교노트를 아이들에게



중정함으로써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변영혜 기자 yhbyun1010@hanmail.net

〈루체포레 캐럴음악회〉 12월 13일(금) 오후 7시



루체포레 카페(강남구 신사동 광림사회봉사관 1층)에 들어서면 중앙에 작은 무대가 있다. 음악 카페가 아닌 일반 카페에서는 흔치 않는 모습이다.

루체포레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많이 오가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이기에 큰 무대 활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작은 무대를 필요로 하는 교인들과 지역사회에 루체포레 무대가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음악회를 기획했다.

첫 번째 무대로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유포닉 클라리넷 앙상블’을 초청해 〈루체포레 캐럴음악회〉를 마련했다. 클라리넷 앙상블 연주와 바이올린 연주로 꾸며진 음

악회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다.

이번 음악회를 시작으로 루체포레 카페가 하우스 콘서트 플랫폼(House Concert Platform) 카페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진한 향기의 커피와 쿠키가 제공되는 캐럴음악회 티켓 판매수익금은 전액 광림수도원 대성전 봉헌 헌금으로 드러질 예정이다.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루체포레 캐럴음악회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한다.

고은경 권사(루체 포레 관리위원장)

[찾아가는 인터뷰 13회]
이인혜 큐레이터 (장천갤러리)

사랑부 12명 아티스트들의 < Art Calendar 2020 > 장천갤러리, 루체포레 서점에서 한정 판매



구나연 <나연이의 방> | 종이에 아크릴, 매직펜 | 39x54cm

전문 지도 받으며 뛰어난 역량 키운 작가들
광림교회 사랑부 소속 12명의 아티스트들의 작품으로 < Art Calendar 2020 >이 제작되었다. 12월 1일~8일까지 장천갤러리에서 작품전시회도 함께 열리며 한정 판매되고 있다. 1993년 사랑부 봉사를 시작으로 2007년부터는 사랑부 전시회 기획을 맡고 있는 '이인혜 큐레이터'를 만나 이번 카렌다 작업과 전시회, 사랑부 소식을 들어 본다.

사랑부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개해 주세요.
사랑부에서는 2003년부터 광림이레센터 회화반, 미술치료반, 주간보호센터 미술반 학생들의 작품으로 '빛을 그리는 아이들'이라는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사랑부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순수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미술 수업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전시회를 통

해 자신감을 가진 사랑부 작가들은 2010년부터는 인사동 경인미술관 등 외부 전시회를 통해 큰 호평을 받았어요. 2013년 9월 광림사회봉사관 개관 기념전으로 일본 조이클럽과 함께 <I'm unique 국제발달장애미술전>에 80여 점의 작품으로 국제전시회도 가졌습니다. 이번 카렌다에 실린 12명의 작가는 박진수, 박윤수, 홍우선, 정관기, 박모란, 정민규, 이주혜, 홍태혁, 이주형, 정윤서, 배병관, 구나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라고 하는 박진수 작가처럼 열정을 가지고 매년 전시회를 갖는 사랑부 학생들은 이번 카렌다 작업과 전시를 통해 큰 자부심과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학생들 미술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문 지도교사(이은경, 박소영, 오원경, 김남주, 강수정) 5명의 선생님들과 25명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미술 수업은 학생들의 특성을 구분해 4~5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줄긋는 것도 힘들어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작가로 발전했습니다. 미술반에서는 개개인의 'Story Book'을 만들며 발전하는 모습과 숨겨진 재능을 보여주고, 선생님들은 따뜻한 인내와 학생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사 3명과 학생 7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 개인의 특성을 더 관찰하고 지도하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1:1 수업의 초등반 미술 수업

도 계획하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효율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아티스트들이 제작한 < Art Calendar 2020 >은 어디서 판매하나요?

장천갤러리와 루체포레 서점(광림사회봉사관 1층)에서 한정판매합니다. 사랑부에서는 이번 카렌다 수익금으로 작가들에게 이미지 사용료를 지급해 직업재활 사업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고, 선교 후원금으로도 사용됩니다. 사랑부 '사랑나눔중창단'(김승한, 정관후, 김경우, 전지원)과 함께 베트남 선교를 다녀옵니다. 12월 15일~20일까지 베트남 광림선교센터에서 선교사역 지원과 중창단 공연을 합니다. 이미 지난 12월 1일 루체포레 카페에서 리허설 공연을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의 박수를 받았습니. 많은 후원과 기도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랑부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사랑부에서는 마음의 이야기들을 그림과 음악으로 나타내며 비밀의 문을 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보다 나은 환경에 있는 선진국 시설을 둘러보고 사랑부에 적용할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신 달란트가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직업재활을 위한 계획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사랑부가 선교와 복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 안전과 질서를 위해 헌신하는 <기드온선교회>



광림교회 기드온선교위원회(위원장 송병제 장로)는 기드온의 강직함을 본받아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1년 창립하였으며, 현재 40여 명의 회원들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차량 주차안내를 주된 사명으로 봉사하고 있다.

광림교회 주차장은 광림사회봉사관 지하 1층에서 6층까지, 그리고 본당 지하를 비롯 통로주차까지 합하여 약 1,200대를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일에는 여전히 공간이 부족하다. 기드온 회원들은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하여 매 주일 2부예배 차량이 어느 정

도 정리된 시간에 평가회를 갖고, 주차안내 매뉴얼을 점검 보완하는 등 지혜를 모은다. 봉사하는 위치가 떨어져 있어도 최신형 무전기로 신호체계를 갖추어 시시각각 변하는 차량 흐름에 대비하면서 교인들이 주차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와 함께 예배를 돕는 손과 발이 되고자 영성훈련도 함께한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 부목사를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고, 둘째 주일에는 자체 경건회로 모여 공동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교회로 나올 때 성도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 기드온선교회원

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대하려고 한다. 그런데 차량 주차로 인하여 마찰을 빚기도 하는데, 이들은 성도들이 주차위원들의 안내에 적극 따라주는 것이 가장 원활한 방법임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기드온선교위원장인 송병제 장로는 "40명의 회원 중 주일날 실제 봉사하는 회원은 20~25명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참여인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성도들에게 세심한 봉사도 하고, 나아가 시간대별로 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 또 지하공간에서 봉사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많습니"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많은 동참을 요청했다.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항상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봉사하는 기드온 선교회원들. 그들이 있기에 광림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성도들의 주차도 편리하게 관리되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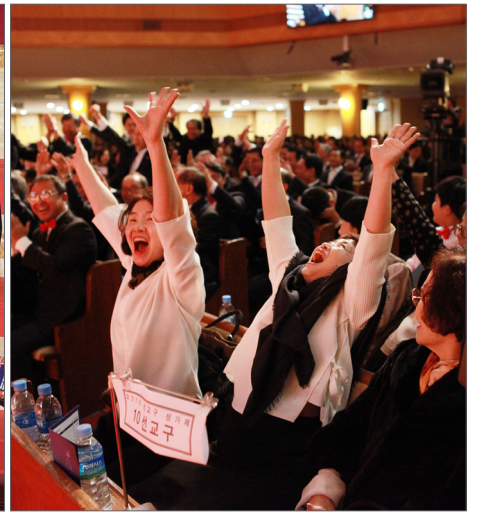
• 가입문의 : 기드온선교회 010-3529-9736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2019 선교구 성가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12월 1일 주일 저녁 7시, 본당 11개 선교구와 지교회 모여 하나로 화합한 자리



대상 10선교구



금상 6선교구



은상 11선교구



동상 광림남교회 1선교구



원기상 광림북교회



인기상 3선교구



격려상 9선교구



격려상 1선교구



격려상 7선교구



장려상 5선교구



장려상 광림남교회 2선교구



장려상 4선교구



소망상 2선교구



소망상 8선교구



소망상 광림서교회

[사진 제공 : 박진서 권사]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7 벧 셰아림 5번 석관



벧 셰아림 5번 석관

כן הן מנחות אטיון בתו שלרבי	1월 이 곳에 그들이 안식하고 있다. 아티오 랍비 (가말리엘)의 딸
גמליאל בן נחמיה שמתה	2월 (랍비) 가말리엘, 느헤미야의 아들, 그녀는 죽었다
בתולה בת עשרים ושנים	3월 처녀로 스물 두살
שנה ואטיון בתו שלרבי	4월 그리고 아티오 랍비 (유다)의 딸
יהודה בנו שלרבי גמליאל	5월 (랍비) 유다, 랍비 가말리엘의 아들
שמתה בת תשע	6월 (아티오) 죽었다. 아홉 (살)
שנים	7월 (아홉) 살
וששה חודשים עמידת	8월 육개월에. (그들의) 부활...

바리새파니, 사두개파니 하는 것은 같은 철학, 같은 정치 이념, 같은 신앙관들을 공유하는 이들이 모인 복잡한 이익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이 둘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늘 충돌했습니다.

사두개는 '사독'이라는 말이고, 사두개파는 사독계열 제사장의 권위를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과 신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요. 많은 제사장들이 사두개파 공동체에 속해 있기는 하였지만, 모든 제사장이 사두개파인 것은 아닙니다.

사두개파에 비해서 바리새파는 매우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에 비해서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했지만,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회당에서 치루어지는 거룩한 의식들은 모두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의 가르침은 유대 공동체의 말초신경 끝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사두개파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최고의 권력층이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에 모여들었던 거지요. 그래서였을까요?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권위적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무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이런 신분적인 특징이 없습니다. 제사장으로 부터 시작해서 시골 마을의 농부와 어부들까지 회당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잠재적으로 바리새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파와 비교해 보건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다양하고, 경제적인 능력 또한 특징 지을 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두개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과 삶의 기준은 '오직' 모세 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오경과 함께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려주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랍비들의 가르침이 모세 오경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기록된 율법'이라 불렀고, 권위있는 조상들(랍비들)의 가르침을 '입으로 전해진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력만 유지가 된다면 어떤 정치체제이든, 어떤 문화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엄격한 율법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인지라, 율법적인 삶을 방해하는 문화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의 뜻이 '분리하다'인데요.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적이지 않은 삶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두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이고, 악하고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역사는 지금을 살고 있는 내 삶의 결과일 뿐,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바꾸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던 공동체였습니다.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또 어떤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이기엔 인간은 그저 순종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해 나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는 천사나 사탄을 영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구약성경의 전통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와 인간들을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뭐니뭐니해도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부활과 내세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세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눅 20:27) 오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저 '스올'로 내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1세기의 위대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52CE)입니다. 랍비들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에게 붙여주는 '라반'이라는 호칭이 주어진 가말리엘은 예루살렘 산헤드린(대산헤드린)의 수장이었고, 바울의 선생이기도 했습니다.(행 22:1-3) 가말리엘의 무덤은 지중해 바닷가의 야브네(Yabneh)라는 곳에 있지만, 그의 딸의 무덤은 벧셰아림(Beth Shearim)이라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가말리엘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마을에서 살다가 나중에 야브네로 이주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말리엘의 딸은 죽은 뒤, 그 시신이 석관에 안치되었는데, 가말리엘의 가족은 처녀의 몸으로 죽은 그의 딸을 기억하며, 바리새파의 신앙을 따라 딸의 부활을 기대하는 기원을 석관에 새겨 넣었습니다.

"스물두살의 나이에 처녀로 죽은 느헤미야의 아들 랍비 가말리엘의 딸 아티오, 그리고 구년 육개월을 살다가 죽은 랍비 가말리엘의 아들인 랍비 유다의 딸 아티오 이 여기에 쉬고 있다. 그들의 부활..."

사진설명

1 벧 셰아림 5번 석관 (Catacomb No.20 Sarcophagus No.5)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